

# 태국 쌀 정책의 최근 동향(개요)<sup>1)</sup>

(원저자) 이노우에 쇼타로(井上莊太郎)\*

허 덕\*\*, 김종진\*\*\*

## 1. 머리말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식품과 농산물 수출국이다. 태국에서는 탁신<sup>2)</sup> 총리가 2006년 축출된 군사 쿠데타 이후 15년 동안 불안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뿐 아니라 과격한 반정권 운동과 군사 쿠데타, 그리고 사법부에 의한 총리 해직과 정당의 해당이 반복되어 왔다<sup>3)</sup>.

1) 이 글은 井上莊太郎, (2022년 1월 31일), ‘タイの米政策の近年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ビュー』 No.105, 農林水産政策研究所([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20131\\_pr105\\_03.pdf](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20131_pr105_03.pdf))과 井上莊太郎 (2021년 3월), ‘第1章 タイ-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資料 第6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10331\\_R02cr06\\_01.pdf](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10331_R02cr06_01.pdf)) 그리고 김정호, 김정호, ‘[특집: 태국 농축산업] (제2편) 태국의 쌀 수급과 수출 동향 및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 중 쌀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태국의 농업 및 축산업 그리고 무역 및 농업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호, ‘[태국 농축산업] (제1편) 태국의 농업 개황’ ~ ‘[태국 농축산업] (제5편) 태국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446/page/8](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446/page/8))을 참조하기 바란다.

\* PRIMAFF 국제영역 상석주임연구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2)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태국(타이)의 정치인. 제23대 총리를 지냈다. 치앙마이에서 출생했으며 화교이다. 화교식 이름은 휴탕신(丘達新, huiˊ tad xinˊ)이다. 탁신은 총리 취임 이후 보여준 대중주의적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기득권층 출신이었다. 탁신의 증조부때 이미 비단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부유층에 끼어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인 룯도 치앙마이 일대에서 사업하던 지역유지이면서도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갖 비리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고 논란이 많았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3) 태국 정치의 교착 상태는 혼란스럽고 진전없는 상태이다. IMF가 터지고 탁신은 자신이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2001년 등장했고, 결국 태국 경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탁신은 새로운 리더십의 희망이었지만, 군부 쿠데타로 인해 2006년 축출되었다. 하지만 이후 PPP 탁신계 정당은 계속해서 총선에서 승리한다. 탁신 동생 잉락이 총리가 됐던 때도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리고 푸마폰 국왕이 서거하고 군부는 핑계 삼아 시간을 벌었고 2019년 군인출신의 프라윗 총리가 선출되었다. 태국 지역은 현재 노란색의 반탁신 세력과 빨간 색의 친탁신으로 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탁신은 비주류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며 1997년 경제위기에 등장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며, 2001년과 2005년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정권을 창출해냈다. 하지만 그는 정경유착형 사업을 했고, 개인 인기를 과신해 친인척, 측근정치를 했다. 개혁의 탈을 쓴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지속하였다. 태국에서는 군사정권의 연장자로 여전히, 장군에서 총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쿠데타마다 군부정권의 명칭이 변경된다. 지금 헌법의 기초인 2017년 헌법 내용은 오히려 이전보다 쇠퇴했다는 평을 받으며 군가 위기 시 군사위원회에 권력이 넘어간다는 내용으로 군부의 권력장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이러한 태국의 정치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세안 평균보다 태국의 경제성장이 더딘 것을 보여준다. 현재 태국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꼴이다. 통치하는 자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

그리고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5년이 지난 2019년에야 총선이 치러지면서, 민정 이관이 실현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태국 정치경제 동향과 총선 후 성립된 현재 연립정부의 쌀 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연정 출범

5년 만에 치러진 2019년 총선은 독일 등에서 치러지고 있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sup>4)</sup>가 채택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소선거구의 승패에 관계없이 각 정당의 의석 총수는 전체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에서의 승리자는 각 정당에 배분된 총수 중에서 우선적으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실질적으로는 완전비례대표제에 가깝다” 고 말한다.

---

고, 선거에서 이긴 자가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2019년에 청년들이 선거가 불공정하다며 민주화 항쟁을 벌였다. 세 손가락을 펼치며 그들은 헌법개정, 총리퇴진, 왕실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통제된 상태이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요약) 태국의 정치와 경제, 홍연아, <https://blog.naver.com/kshsunny0227/222387921701>)

- 4) 세계의 각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선거제도를 그 의석 결정방법에 따라 구별하면 크게 단순 다수제 또는 절대 다수제에 기초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소선거구제에는 ‘각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사를 국회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비례대표제는 ‘투표자에 의한 정당에 대한 득표율과 의석율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정치사정에 따라 각각의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또한 그 한편으로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2개의 제도를 조합하여 선거를 실행 하는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를 조합한 제도를 크게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제**’라고 한다. 하나 하나의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2개의 제도를 조합함으로써 점차 다양해진다.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독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 또한 러시아·일본·헝가리에서 채용하고 있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있다. 이 중 전자는 초과 의석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만큼 해당 정당에 득표율을 초과한 의석이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순수한 비례대표제보다 유권자의 민의(民意)가 의석율과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표자에 의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을 일치 시킨다’는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정원수와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원수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의 비율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는 별도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연용제(連用制)**라는 제도도 있다. 이것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에 있어서 소선거구 쪽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한 경우 그만큼 투표자의 득표율을 초과하여 해당 정당이 유리해 진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획득한 의석수의 합계에서 소선거구 초과 의석분 만큼 삭감하는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전체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선거구 초과 의석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2배만큼 유리해져 투표자의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 **소선거구 비례대표 양립제(兩立制)**라는 제도도 있다. 이것은 소선거구의 유권자가 선출한 초과 의석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에 의해 발생한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조정에 의해 없앤 것이다. 이 의미에서 각 당의 의석배분은 어디까지나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결정된다. 단,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병용제에 비해 초과 의석수가 많아져 총 정원수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양립제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의석보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을 많게 하거나 또는 사전에 정원수를 적게 하여 초과 의석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다수제도**도 이 혼합제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상원과 하원의 산출방법이 다르지만 소선거구의 승자가 획득한 득표수를 이용하여 득표 조정을 실행하고 득표 조정이 끝난 득표수를 기초로 비례대표분으로 의석이 배분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모든 병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례 대표의 요소가 강한 선거제도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태국 공헌당은 아무리 소선거구 선거에 강하더라도 극적인 승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국회에서의 수상 선출에서는 상원의원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상원의원은 전원이 프라웃<sup>5)</sup> 군정의 지명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군정에 유리한 선거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 결과, 탁신파인 태국 공헌당은 1위 의석수를 얻었지만, 과반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프라웃 총리가 당수로 있는 국민국가의 힘당이 민주당 등 소수정당과 연립하여 그대로 새로운 민정의 정권으로 내각을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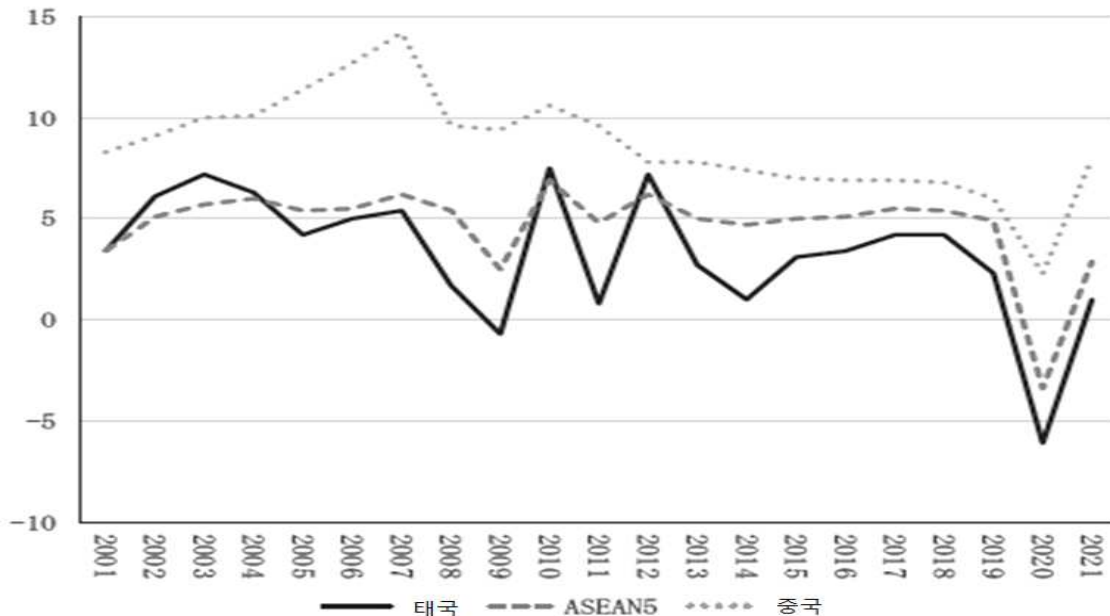
### 3. 경제동향

장기에 걸친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억제하게 되었고, 또 태국 정부에 의한 통상 협정 교섭을 저해하는 등,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ASEAN5 평균을 웃돈 해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그림 1).

---

5) 프라웃 찰오차(Prayut Chan-o-cha, 1954년 3월 21일~ )는 태국의 정치인이자 은퇴한 태국 육군 장성이며, 2014년부터 태국의 총리, 2019년부터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프라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태국군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2014년 5월 22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태국을 통치한 군사정권인 국가평화유지위원회(NCPO)를 설치한 쿠데타의 지도자였다. 2010년 군 총장으로 임명된 후, 프라웃은 왕당파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반대자로 특징지어졌다. 군 내 강경파로 간주되는 그는 2009년 4월과 2010년 4월~5월 레드 셔츠 시위에 대한 군사적 진압을 주도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후에 유혈 분쟁으로 사망한 시위자들의 친척들과 대화하고, 2011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한 잉락 친나왓 정부와 협력하면서 자신의 프로필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2013년 11월에 시작되어 잉락의 관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수반한 정치적 위기 동안, 프라웃은 군대가 중립적이며,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프라웃은 정부에 대항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독재자이자 NCPO 지도자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는 후에 임시 헌법을 발표하여 스스로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면을 내렸다. 2014년 8월, 군부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 한 국회의원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권력을 잡은 후, 프라웃 정부는 반대에 대한 상당한 탄압을 감독했다. 그는 전통적인 태국 가치에 기초하여 ‘12가지 가치’를 공식화했고, 이것들이 학교 수업에 포함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과 언론 검열을 포함한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프라웃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태국 총선에 이어 태국의 총리로 재선되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전년대비, %)의 흐름



주: ASEAN5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1)(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 井上荘太郎, 2022년 1월 31일, ‘タイの米政策の近年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ビュー』 No.105,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그리고 관광이 활발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태국은 2020년부터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2021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전년 대비 6.1%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은 36.6%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 등의 회복 지연은 경제성장 전체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 연합 정부의 쌀정책: 부족분 지불(부족불) 정책 도입

### 4.1. 쌀 수급 상황

태국의 쌀 재배에는 건기작(乾期作)과 우기작(雨期作)이 있다. 2014년 이후 생산량의 변동이 심한 것은 건기작 쌀이다(표 1). 건기작 쌀은 2014년에는 약 1,500만 라이(240만 ha, 1라이는 0.16ha)에서 경작되어 약 967톤의 쌀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2기작을 억제하여 경지면적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의 영향으로 2020년에 건기작 쌀의 경작면적은 약 730만 라이(116만 8천ha)가 감소하여 생산량은 약 450만 톤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우기작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2014년 이후는 경작면적은 약 6,000만 라이(960만 ha) 정도, 생산량은 2,400~2,600만 톤 정도에서 추이하고 있다.

표 1 태국의 쌀 생산동향

(단위: 라이, 톤, kg/라이)

품목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쌀_건기작	경작면적	15,055,076	8,460,759	5,137,685	10,456,548	12,068,980	10,996,474	7,319,240
	생산량	9,672,093	5,346,915	3,109,468	6,620,845	7,964,554	7,170,258	4,541,329
	단수	642	632	605	633	660	652	620
쌀_우기작	경작면적	60,790,599	58,063,476	58,645,474	59,220,823	59,980,731	61,197,134	-
	생산량	26,269,964	24,311,539	25,236,345	24,934,349	25,177,856	24,064,170	-
	단수	432	419	430	421	420	393	-

자료: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 홈페이지에서 원저자(이노우에 쇼타로) 작성.  
<http://www.oae.go.th/view/1/%E0%B8%82%E0%B9%89%E0%B8%AD%E0%B8%A1%E0%B8%B9%E0%B8%A5%E0%B8%81%E0%B8%B2%E0%B8%A3%E0%B8%9C%E0%B8%A5%E0%B8%B4%E0%B8%95%E0%B8%AA%E0%B8%B4%E0%B8%99%E0%B8%84%E0%B9%89%E0%B8%B2%E0%B9%80%E0%B8%81%E0%B8%A9%E0%B8%95%E0%B8%A3/TH-TH> (2021년 1월 29일 접속). 井上莊太朗, 2021년 3월, ‘第1章 タイ-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 資料 第6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쌀 가격은 품목에 따라 동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2014년 이후로는 멍쌀과 찰쌀은 2020년, 향미(香米) 쌀은 2019년의 가격(농가 정선(庭先, 또는 문전(門前) 가격)이 가장 높다(표 2).

표 2 쌀 품종별 농가 정선 가격

품목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멍쌀	바트/톤	7,716.33	7,756.42	7,900.67	7,738.67	7,763.13	7,779.36	8,793.22
향미 쌀	바트/톤	13,782.33	13,939.33	10,188.39	10,188.39	15,122.39	15,487.21	13,450.90
찰쌀	바트/톤	11,856.17	11,365.58	12,057.72	10,149.28	6,420.95	12,171.67	14,164.96

자료: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 홈페이지에서 원저자(이노우에 쇼타로) 작성.  
<http://www.oae.go.th/view/1/%E0%B8%94%E0%B8%B1%E0%B8%8A%E0%B8%99%E0%B8%B5%E0%B8%A3%E0%B8%B2%E0%B8%84%E0%B8%B2%E0%B9%81%E0%B8%A5%E0%B8%B0%E0%B8%9C%E0%B8%A5%E0%B8%9C%E0%B8%A5%E0%B8%B4%E0%B8%95/TH-TH> (2021년 1월 30일 접속). 井上莊太朗, 2021년 3월, ‘第1章 タイ-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 資料 第6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또한 쌀 수출은 바트 강세와 가뭄에 의한 경쟁력 저하로 인도, 베트남, 중국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데, 2019년에는 794만 톤, 37,151억 바트(152,319억 엔, 1,592,663억 원<sup>6)</sup>), 2020년에는 608만 톤, 138억 바트(565.8억 엔, 5,916.1억 원) 등으로 2018년 이전에 비해 감소세가 심하다(표 3, 표 4).

표 3 쌀 및 그 가공품 수출액

(단위: 백만 바트)

품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쌀, 그 가공품	193,759	201,237	151,052	137,809

자료: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 홈페이지에서 원저자(이노우에 쇼타로) 작성. <http://impexp.oae.go.th/service/export.php> (2021년 1월 28일 접속). 井上莊太郎, 2021년 3월, ‘第1章 タイ-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 資料 第6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표 4 쌀 및 그 가공품 수출량

(단위: 천 톤)

품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쌀, 그 가공품	11,986	11,564	7,937	6,084

자료: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 홈페이지에서 원저자(이노우에 쇼타로) 작성. <http://impexp.oae.go.th/service/export.php> (2021년 1월 28일 접속). 井上莊太郎, 2021년 3월, ‘第1章 タイ-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 資料 第6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 4.2. 태국의 쌀 부족불 제도

### (1) 프라우트 민정의 쌀정책 추진 경위

#### 1) 2019/20년도 (2019년 10월~2020년 9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9/20년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총선거 결과, 국민국가의 힘당은 다수의 소수정당과 연립내각을 조직하였다. 이 연립에 참가하여 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수당 지급 등 저소득자나 농가보호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다. 농업 관계로는 쌀, 고무, 팜야자(Oil Palm) 제품의 가격 보증을 공약하고 있었다.

6) 2021년 11월 말일 기준 태국 바트화와 엔화, 원화의 환율(환율 플러스 앱)을 이용하였다. 이하 같다.

선거 후의 연립내각에서는 현재의 주린 락사나비쉴 민주당 대표는 프라웃 내각의 부총리 겸 상무장관으로서 미국 관계의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던 최저소득 보증정책은 민주당 아피싯<sup>7)</sup> 정권 하에서 실시된 농가소득 보증정책에 가까운 정책이다. 이것은 쌀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하는 보증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차액을 농가에 지불하는 부족분 지불(不足分 支拂, 이하 ‘부족불(不足拂)’ ) 정책이다.

보증가격의 수준에 따라 실제로 지불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변동된다. 보도에 따르면, 벼농사 농가의 최저소득 보증정책이 실제로 도입되면 연간 예산액은 500억~600억 바트(약 2,150억~2,460억 엔, 2조 1,435억 원~2조 5,722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라웃 내각이 2018/19년에 도입한 농가에 대한 저리 융자·보조금 제도와 거의 같은 규모이다.

2019년 8월 프라웃 내각은 쌀 농가와 팜야자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승인하였다. 예산 총액은 약 600억 바트(약 2,460억 엔, 2조 5,722억 원)이다. 이 중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215억 바트(881.5억 엔, 9,217.1억 원)이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성에 등록되어 있는 쌀 5종의 농가 89만 2,176호이다. 품종에 따라 1톤당 1만 바트로부터 1만 5,000바트(61,500엔, 643,050원, 호당 상한은 14~30톤)의 가격이 보증되게 되었다(표 5 참조). 시장가격과 보증가격의 차액이 보조금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은행(BAAC)의 계좌를 통해 지불된다.

보증 대상이 된 5개 품종의 쌀 각각에 대한, 1톤당 보증가격 및 1농가 또는 경작면적 40라이(6.4ha)당 보증 대상의 수량 상한은 <표 5>와 같다.

향미 쌀이 아닌 보통쌀(普通米, 수분함유율 15%)의 보증가격이 1만 바트/톤(41,000엔, 428,700원), 상한 수량은 30톤)인데 반해, 향미 쌀(자스민 쌀)은 1만 5,000바트/톤(61,500엔, 643,050원)으로 약 50% 정도 높다.

단, 상한 수량은 14톤으로 절반 이하가 되었다. 또한 자스민 쌀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파툼타니(Pathumthani) 향미 쌀의 보증가격은 11,000바트/톤(45,100엔, 471,570원)이다. 상한 수량은 25톤이다. 보증 가격, 상한 수량 모두 보통 쌀과 자스민 쌀의 중간쯤 된다.

참쌀의 보증가격은 1만 2,000바트/톤(49,200엔, 514,440원), 상한수량은 16톤으로, 모두 파툼타니 향미 쌀을 조금씩 웃돈다. 지역산(顯産) 향미라고 불리는 품종은 보증가격 1만 4,000바트/톤(57,400엔, 600,180원)으로 참쌀을 2,000바트/톤(8,200엔, 85,740원) 웃돈다. 또한 상한 수량은 참쌀과 같은 16톤이다.

7) 아피싯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태국의 정치가. 태국 화교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22세에 태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2005년 민주당 총재를 거쳐 2008년 12월 제27대 타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2008년 12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4개의 소(小) 정당과 연합하여 연립정부 내각을 구성하였다. 4개월 동안 4차례나 총리가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집권하여 경제 살리기와 정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농촌 주민들과 도시 빈민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2) 2020/21년도 (2020년 10월~2021년 9월)

프라웃 정권은 2020/21년도에도 쌀 가격 보증 제도에 대해서는 2019/20년도의 구조를 계속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의 수확미를 대상으로 가격 보증을 한다.<sup>8)</sup>

2020/21년도의 쌀 및 천연고무의 가격보증제도 예산은 약 619억 바트(약 2,538억 엔, 26,536.5억 원)이며, 그 중 쌀에는 약 512억 바트(2,099.2억 엔, 21,949.4억 원), 고무에는 약 100억 바트(410억 엔, 4,287억 원)가 할당된다.

가격보증의 대상이 되는 쌀의 품종, 보증가격, 상한 수량, 상한 경작 면적은 <표 5>에 나타난 전년도와 같다.

또한 고무의 가격 보증은 2020년 10월부터 21년 3월에 수확한 고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킬로그램 당의 보증 가격은 생고무 시트가 60바트(246엔, 2,572.2원), 라텍스가 57바트(233.7엔, 2,443.6원), 컵 램프가 23바트(94.3엔, 986원)이었다. 농가 1호당 보증 상한은 25라이(4ha)이다.

쌀의 가격 보증과 평행하여 쌀에 대해 세 가지 조치가 추가로 실시되고 있다. (1) 출하를 늦추는 농가에 대한 자금 융자. 198억 바트(811.8억 엔, 8,488.3억 원), 기간은 2020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2)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자금융자 150억 바트(615억 엔, 6,430.5억 원), (3) 쌀의 거래업자 차입금에 대한 이차지원이다. 일련의 시책은 2020/21년에도 같은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2020/21년도의 제1회 지급에서는 쌀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인 전체 5종류의 쌀에 대한 보조금이 농가에 지불되게 되었다.<sup>9)</sup>

각종 보도에 의하면, 제1회 지급 분의 대상은 2020년 11월 8일까지 수확된 5가지 종류의 쌀이다. 지급액은 보통 쌀이 1,222바트(5,010.2엔, 52,387원), 향미 쌀(자스민 쌀)가 2,911바트(11,935엔, 124,795원), 파툼타니 향미 쌀이 1,067바트(4,374엔, 45,742.3원), 지역산 향미 쌀이 2,137바트(8,761.7엔, 91,613.2원), 찰쌀이 2,084바트(8,544.4엔, 89,341.1원)이었다. 대상이 되는 벼농사 농가는 83만 9,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액으로 360억 바트(1,476억 엔, 1조 5,433.2억 원)로 추정된다.

이상, 2019년 총선 결과 군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연립정권이 되었으며, 2019/20년도, 2020/21년도에 농업정책 메뉴가 증가하여 농업보호가 한층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벼농사 농가에 대한 보호정책은 재정지출 규모도 크고 관련된 농가 수도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21세기 초 탁신 정권 이래, 가격 지지 정책과 부족불 정책이 교체되는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2021년에는 연정으로 10년 전 실시된 민주당 부족불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부활하여 실시하였다.

8) 방콕 포스트, 'Cabinet approves price guarantees for rice and rubber', 2020년 11월 4일자 기사.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013507/cabinet-approves-price-guarantees-for-rice-and-rubber>.

9) 방콕비즈니스, '농부 소득 보험 프로그램 '쌀'의 세부 사항을 확인 - '고무' 정부는 6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2020년 11월 7일자 기사.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906444>.



현재의 쌀 부족불 정책에 의하면, 쌀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하는 보증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차액을 보조금으로 하여 농가에 지급한다.

쌀은 이에 더해 생산지원 명목으로 약 430만 쌀 농가에 약 258억 바트(1,057.8억 엔, 1조 1,060.5억 원)가 지급되게 되었다. 1호당 상한은 20라이(3.2ha)로 1라이당 500바트(2,050엔, 21,435원)이다.

그리고 팜야자 농가에 대해서도 보증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이 1호당 25라이(4ha)를 상한으로 지불되게 되어, 이쪽의 총액은 약 130억 바트(533억 엔, 5,573.1억 원)였다.

이 정책은 보증가격과 보증 상한수량을 품목에 맞게 세세하게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표 5).

표 5 프라우트 정권의 품종별 쌀 가격 보증 정책(2019/20 작물연도)

항목	백미	향미(자스민 쌀)	파툼타니 향미	참쌀	지역산 향미
보증가격(바트)	10,000	15,000	11,000	12,000	14,000
보증상한수량(톤)	30	14	25	16	16
상한 경작면적(라이)	40	40	40	40	40

주 1: 보증상한 수량 또는 상한 경작면적 중 어느 한 쪽이 적용됨.

2: 2020/21년도에도 대상 품목, 보증가격, 상한수량, 상한경작면적은 같음.

자료: 보도에 의해 원저자(이노우에 쇼타로) 작성. 井上莊太郎, 2022년 1월 31일, ‘タイの米政策の近年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ビュー』 No.105,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이 제도는 자스민 쌀의 높은 시장가격 수준에 맞추어 보증가격을 설정함과 동시에, 1호당 보증 상한수량을 큰 폭으로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농가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스민 쌀의 생산자는 소규모 농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한 수량이 적은 것에 대한 저항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이러한 보호 정책은 팜야자, 천연 고무, 옥수수, 카사바에서도 계획·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19년부터 연정에서는 쌀과 관련된 농업 정책 메뉴가 증가하고, 다른 작목까지 포함하여 농업 보호가 확충되었다고 생각된다.

## 5. 맺음말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은 발전 단계상 중위 소득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제성장에 수반하는 농공간의 소득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태국 정부는 시기에 따라 강

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보호의 경향을 강하게 해 왔다. 그러나, 태국은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 보호는 WTO(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규율에 따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태국정부에서는 쌀 정책을 ① WTO 약속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빼돌리기 등의 부정을 막는 투명한 구조, ③ 정책개입에 의한 혜택이 대규모 생산자나 유통, 가공업자 등에 편재하지 않는 공평한 제도, ④ 시장 왜곡성이 작은 효율적인 제도 설계, ⑤ 농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 등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프라윗 정부의 보증 상한부 부족불 정책은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 등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과거 실시되어 큰 혼란을 일으켰던 담보대출제도(실질상 고액매입제도)에 비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단, 이전의 민주당에 의한 동종의 정책(2009년~2011년)은 태국 공헌당의 대규모 수입쌀 정책 공약으로 선거에서 지지를 빼앗긴 적도 있다.

2019년에 현재의 연립 정권이 성립한 후에도, 전통적인 정치 세력과 신흥 정치세력과의 대립은 계속 되고 있고, 게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왕실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데모나 집회도 계속 되고 있는 등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정책 변화에 따라 태국의 쌀 생산·수출 동향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정책 동향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정호, ‘[특집: 태국 농축산업] (제1편) 태국의 농업 개황’,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특집: 태국 농축산업] (제2편) 태국의 쌀 수급과 수출 동향 및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특집: 태국 농축산업] (제3편) 태국의 축산업과 사료곡물 동향 및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특집: 태국 농축산업] (제4편) 태국의 식품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특집: 태국 농축산업] (제5편) 태국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2019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1)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

井上荘太郎, (2021), 「第1章 タイ -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プロジェクト研究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研究資料 第6号』

井上荘太郎, 2021년 3월, ‘第1章 タイ - 民政移管と連立政権の農業政策 -’, 農林水  
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 プロ研 資料 第6号」

井上荘太郎, 2019. “第6章 タイ - 米の保護政策の後退と農業の多様化”, 農林水産  
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11号』

태국 농업·협동조합성, 농업경제국 홈페이지  
(<http://www.oae.go.th/view/1/%E0%B8%82%E0%B9%89%E0%B8%AD%E0%B8%A1%E0%B8%B9%E0%B8%A5%E0%B8%81%E0%B8%B2%E0%B8%A3%E0%B8%9C%E0%B8%A5%E0%B8%B4%E0%B8%95%E0%B8%AA%E0%B8%B4%E0%B8%99%E0%B8%84%E0%B9%89%E0%B8%B2%E0%B9%80%E0%B8%81%E0%B8%A9%E0%B8%95%E0%B8%A3/TH-TH>)

(<http://www.oae.go.th/view/1/%E0%B8%94%E0%B8%B1%E0%B8%8A%E0%B8%99%E0%B8%B5%E0%B8%A3%E0%B8%B2%E0%B8%84%E0%B8%B2%E0%B9%81%E0%B8%A5%E0%B8%B0%E0%B8%9C%E0%B8%A5%E0%B8%9C%E0%B8%A5%E0%B8%B4%E0%B8%95/TH-TH>)

(<http://impexp.oae.go.th/service/export.php>)

방콕 포스트, ‘Cabinet approves price guarantees for rice and rubber’, 2020년 11월 4일자 기사.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013507/cabinet-approves-price-guarantees-for-rice-and-rubber>).

방콕비즈니스, ‘농부 소득 보험 프로그램 ‘쌀’의 세부 사항을 확인 - ‘고무’ 정부는 6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2020년 11월 7일자 기사.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906444>).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네이버 블로그, (요약) 태국의 정치와 경제, 홍연아,  
<https://blog.naver.com/kshsunny0227/222387921701>)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환율 플러스 앱